

광주시립발레단, '관객이 뽑은 2021 갈라' 공연

8-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

다시 보고 싶은 발레 명장면 관객들 찾아간다

관객들이 '다시 보고 싶은 발레'로 꼽은 작품의 주요 장면들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은 하반기 첫 발레살롱콘서트 '관객이 뽑은 2021 갈라'를 오는 8-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SNS로 추천 받은 '올해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은 ▲백조의 호수 ▲라 실피드 ▲베니스 카니발 ▲호두까기 인형 ▲해적이다.

'백조의 호수'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 중 하나다. 순백의 의상을 입고 절도 있고 아름다운 대형을 펼쳐 보이는 대표적인 발레 블랑(화이트 발레)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데뜨 공주로 분한 마녀 카라보스의 딸 오달이 다섯 마리의 흑조와 함께 지그프리드 왕자를 유혹하는 2막 1장 '왕궁 무도회' 장면을 펼친다.

'라 실피드'는 총 2막으로 구성된 오늘날 전해지는 발레 중 가장 오래된 로맨틱 발레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주인공 제임스와 요정 실피디의



광주시립발레단은 하반기 첫 발레살롱콘서트 '관객이 뽑은 2021 갈라'를 오는 8-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라실피드' 공연사진.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백조의 호수'·'라 실피드' 등 5개 작품 선봬 18세기 유럽 '살롱' 콘셉트 토크콘서트도 진행

파드 되를 선보인다.

'베니스 카니발'은 베니스에서 열리는 수상 축제에서 만난 두 남녀 주인공과 네 커플의 흥겨운 가장무도회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유명한 베니스의 카니발을 배경으로 이탈리아의 정서와 분위기가, 아름다운 의상과 가면을 쓴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이 볼 만하다.

'호두까기 인형'은 12월 크리스마스 대표 레퍼토리 공연이다. 차이콥스키의 친근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과 화려한 무대미술, 다양한 캐릭터 춤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2막 중 호두까기 왕자와 함께 인형들의 나라로 떠나

각 나라의 춤을 구경하는 모습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해적'은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을 바탕으로 아돌프 아당의 음악이 더해진 작품이다. 김기완, 박슬기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가 특별 출연해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 받는 메도라와 알리의 2인무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최대치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과 박진영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이 살롱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발레살롱콘서트는 발레에 대한 이해와 감상 폭을 넓히기 위해 18세기 유럽의 '살롱'을 콘셉트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발레전문가와 관객이 함께 쌍방향으로 대화를 나누며 발레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다.

올 상반기 5회 공연이 전석 매진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공연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9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대박물관은 8일까지 '조각·彫刻'을 주제로 최미애 초대전을 대학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운영한다.

한 가닥 실 통해 들여다보는 삶과 관계의 매듭

전남대박물관, 최미애 작가 초대전
내일까지 기획전시실서

전남대가 최미애 초대전을 갖는다.

전남대박물관은 '조각·彫刻'을 주제로 하는 최미애 초대전을 8일까지 대학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운영한다.

최미애 작가는 '뜨개' 기법을 통해 한 가닥 실에서 맺어지는 반복된 행위와 축적된 시간을 입체적 형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스스로 내면세계에 침잠하고, 이를 실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보는 이들에게 사람과 시간과 사물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한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용기 형태를 '뜨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실을 이어 작은 조각을 만들고, 이 조각조각을 연결해 재구성하듯 형상화된 작품들은 삶과 관계의 매듭을 들여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얻히고 실린 삶과 그 안에 자리한 많은 존재에 대해 깊게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한한 경쟁, 소외,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7일 '20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은 '20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세션에서 선보일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캡처. <광주문화재단 제공>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래적 회복론하다

오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회복 가능한 도시' 주제 비대면 진행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7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7주년을 맞아 '20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은 유튜브 생중계(광주문화재단T V)와 더불어 이프랜드 메타버스 회의실 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회복 가능한 도시 : 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후·날씨·환경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미래적 회복을 이야기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의 기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인간과 기술,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은 ▲세션1 '회복 가능한 도시를 위한 SD

Gs 실천과 사례' ▲세션2 'Into the City of Metaverse(메타버스 도시 속으로)' 그리고 ▲종합토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위한 광주의 실천적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포럼의 오프닝으로 '지금 내가 바라는 세상 : 코로나 굿바이'를 상영한다. 해당 작품은 지난 8개월 동안 광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서 활동해 온 시민 창작자(시.작.팀)의 결과물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노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담은 영상이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누구나 실시간 유튜브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굿바이트래시 챌린지'가 진행된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 비닐봉지 대신 예코백 등을 사용하는 인증샷을 찍고, 개인SNS에 #회복가능한도시 #광주문화재단 #굿바이트래시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제로웨이스트)한정판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양석승 힐링콘서트...11일 코로나 극복 특별 자선공연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이 11일 광산구 월전동 은곡농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공연 '제32회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금영회 행복충전센터 대표의 사회로 열리는 콘서트는 행복충전 노래감사 박금향씨의 색소폰 연주로 막을 올린다. 이어 MBC방송 주부가 요열장에서 우수상을 받은 전금복씨와 전국노래자랑 출신 전용희씨, 판소리 가수 오양택씨의

가요 무대가 펼쳐진다. 양 소장은 이번 콘서트에서 유머 및 힐링 강의를 함께 마술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이후에는 월전동 어르신들을 위한 만찬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양 소장은 2013년 2월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로 명예퇴직 이후 천혜경로원, 시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등에서 꾸준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최명진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깍지 손 e 국악' 단소편 개설편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깍지 손 e 국악' 단소편을 공개한다.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깍지 손 e 국악' 제1탄에서는 초등 교과과정 단골 수행평가이자 소리 내기의 어려움으로 많은 초등생들에

스트레스를 줬던 '단소'를 완전 정복한다.

전남도립국악단 삼일단원이자 단소 연주자인 윤암현, 강원집 단원이 직접 강의를 나선다. 학생들은 윤지범 등 단소 기본기부터 초등 교과에 수록된 민요 등을 중심으로 실전 연습까지 4주에 걸쳐 단소를 배운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